

호덕리 고분군 도굴 흔적 속 중요유물 발굴

장수군, 발굴조사 성과 공유·현장 확인... 금귀걸이·황공철부 출토

장수군 계남면에 자리한 호덕리 고분군(산 17-8번지 일원)에서 지난 1월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바 있는 하트모양 금귀걸이의 다른 한 짝과 함께 황공철부(橫孔鐵斧) 등 중요유물이 출토됐다.

이에 군은 지난 25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군은 전라북도 동부권발전 특별회계사업의 일환으로 장수군과 (재)고고문화유산연구원(원장 한수영)이 협력해 지난 5월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굴조사 구역은 전라북도 기념물인 삼봉리 고분군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굴 당시 도굴과 경작으로 석곽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구가 훼손돼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금귀걸이는 지난 1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심엽형(心葉形) 귀걸이의 한 쌍으로 확인됐으며, 하트모양이 전체적으로 휘어져 있으나 고리 부분까지 온전한 형태로 출토돼 지역의 고대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철기류와 토기류를 비롯해 그간 전



금귀걸이 한 쌍

북지역 가야시대 유물로 확인된 적 없는 황공철부가 처음으로 출토됐다.

전북지역에서는 그동안 백제(익산 무형리)와 신라(무주 대차리)고분에서 이와 유사한 황공철부가 확인됐으나 전라북도 가야문화권에서는 황공철부가 발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황공철부는 그동안 수장급 고분에 부장된 유물로 권력이나 군사력 등의 위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이번 호덕리 고분군의 당시의 위상을 미루 짐작할 수 있다.

도굴피해가 극심해 고분의 형태나 현황을 파



황공철부

악할 수 없었으나 출토된 유물 등을 살펴봤을 때 6세기 초를 전후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군은 장수지역 가야문화의 양상과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중요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발굴조사로 우리 지역의 역사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긴 호흡으로 지속적인 역사규명을 실시해 우리나라 고대사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제8대 김종현 원장 취임

“국악 대중화·세계화 선도기관으로 도약시킬 것”

국립민속국악원 제8대 원장에 남서울대 실용음악학과 김종현(49) 교수가 지난 25일 취임했다.



신임 김 원장은 “관 소리의 본고장인 남원에서 민속악의 전승과 창작을 통해 모든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명품 국악을 만들어 국민들과 지역에 흥과 활력을 불어넣고, 민속악을 중심으로 전통예술의 보존뿐 아니라 창조적 계승·발전과 현대화를 적극 모색하고, 모든 세대 나아가 세계와의 접점을 꾸준히 확장함으로써 국악 대중화·세계화의 선도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남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로서, 국악 공연의 관광 상품화와 브랜드화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1996년 제1회 KBS대학국악제 대상 수상(작곡)으로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받은 이후, 국악이론 연구, 지휘, 공연기획, 전통예술 정책 개발 등 현장과 이론 분야를 넘나들며 국악 진흥에 기여해 왔으며, 무엇보다 국악 대중화를 선봉에서 서서 이끌어 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과 전통예술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고 안착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콘텐츠 개발·문화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군산문화도시센터, 협약 체결

군산시는 전북지역 문화도시 3곳이 26일 군산문화도시센터에서 ‘문화콘텐츠개발 및 문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정문화도시인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상임이사 정철우)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원도연), 예비문화도시인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화숙)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문화콘텐츠와 청년 문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회숙 군산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8월 초부터 3곳의 문화도시를 묶은 문화인력 기획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해당 도시마다 1주일 살고 문화도시 경험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젊고 실력 있는 인재들의 위케이션 가능성을 진단하는 등 지속적인 공동사업으로 광역권 문화도시 벨트 구축을 위한 상호 간 유기적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시가 예비 문화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구성하고 청년 창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예비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문화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공유도시, 군산은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시민커뮤니티 조직 등과 함께 긴밀한 유대 회복 및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https://www.kunsan.ac.kr/gunsancc>) 및 SNS(www.facebook.com/GunsanCultureCente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문 기자

전북아트플랫폼 미디어아트 공모전 8월 31일까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 전북아트플랫폼 미디어아트 공모전에 참여할 작품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 구축된 정음의 미디어아트 창작공간인 ‘낙서창고 & 井’의 대내외 홍보 및 전라북도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창작작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전라북도 유·무형 문화예술, 관광자산을 활용한 창작작품으로, 예술과 미디어 기술을 융합해 작품 제작이 가능한 개인 또는 팀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작품은 전북아트플랫폼 상영 스크린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5~10분 이내로 반복재생이 가능한 영상물로 오디오 사운드를 포함해야 한다.

공모신청서 및 작품 영상파일을 8월 31일까지 이메일(paint@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통해 수상자 총 4인(팀)을 선정, 총 1,2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은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전북아트플랫폼 ‘낙서창고 & 井’ 메인 스크린에서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교육문화팀(063-230-745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남원시는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한 음악의 선율로 가득 채우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공연을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 무대에서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 펼친다.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펼쳐진다

남원시, 27일~8월 12일 매주 목·금·토 다양한 무료 야외공연 진행

남원시는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한 음악의 선율로 가득 채우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공연을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 무대에서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여름 휴가철 남원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무료 야외공연이며, 남원의 대표적인 여름철 상설 공연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여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한다.

남원시립예술단의 협력으로 개최되는 공연은 남원시립국악단의 퓨전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남원시립농악단(농악), 남원시립합창단(성악)

이 무대에 올라 기량을 맘껏 뽐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월매집에서 관객들에게 수 많은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 남원시립국악단의 남원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 공연이 2회 진행되며,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수준 높은 농악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시립농악단의 남원농악 판굿 및 선반 사물놀이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가요부터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로 가득 차 있는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지며, 단체별 자세한 공연 내용은 남원시(문의전화 063-620-6162)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야외공연 특성상 우천취소 및 일정 변경이 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